SK하이닉스 '반도체 광고' SNS서 빅히트

반도체 이인화 방식으로 재미 더해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말 공개한 '반도체' 광고가 보름만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조회수 합산 765만 뷰를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광고업계에서는 통상 조회수 200만 이상이 나오면 'SNS 히트작'이라고 본다.

SK하이닉스 광고는 '반도체 의인화'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재미를 더했다. 졸업식을 맞은 반도체들이 스마트폰, AI 등 여러 첨단 기기들로 보내진다는 스토리라인이다. 우주로 가는 반도체가 기뻐하고, PC방에 보내지는 반도체가 좌절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한다. 반도체가 세상 모든 곳에서 쓰인다는 메시지를 젊은 세대 트렌드인 펀(Fun) 코드에 잘 담아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사진은 SK하이닉스가 지난 4월 말 선보인 'HY310 반도체' 광고. /SK하이닉스

타깃이 젊은층인 만큼, SK하이닉스가 주력하는 미디어는 상당부분 유튜브 등 소셜 채널이다. SNS에서는 '하이닉스가 이런 광고를 만들다니', '이게 뭐라고 감동적…', '입사하고 싶다' 등 호평을 받고 있다.

SK하이닉스 홍보담당 김정기 상무는 "반도체 회사를 막연하게 딱딱한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이 광고를 보고 회사가 한층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모든 첨단 IT 기기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CF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추대… 창업주 예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이 한국 롯데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롯데지주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을 창업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이달 1일부로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일본 롯데에서도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신 명예회장은 2014년 롯데리아와 롯데로지스틱스 비상무이사, 2015년 롯데상사 사내이사, 대홍기획 비상무이사, 3월엔 호텔롯데 대표이사와 롯데제과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고 11월엔 부산호텔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

2017년 3월 롯데쇼핑, 롯데건설, 5월 롯데자이언츠 사내이사, 6월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내려놨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한국과 일본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퇴임했다"며 "창업주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회장으로 추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신 명예회장이 지난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고, 이후 신 회장의 결정으로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총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5월 15일 (음 4월 1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꾸준한 노력이 정상까지 오른다. 60년생 덕을 베푼결과 존경의 대상이 되겠다. 72년생 문서 처리는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조치하라. 84년생 사업적으로는 주변사람과 의견 충돌을 피하고 보라.

소 49년생 북서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으니 출행하게 된다. 61년생 자신감이찬 패기로 추진력도 있고 적극적이다. 73년생 정상에 오를 때까지 좌절하지 마라. 85년생 부부가 함께 한는 것이 화목의 기본이다.

호랑이 50년생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오해가 없다. 62년생 병은 자랑해야 낫듯이 고민을 털어놓아야 해결된다. 74년생 흉살이 작용 하니 유비무환으로 대처하라. 86년생 어려운 현실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있다.

토끼 51년생 헛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라. 63년생 독존적으로 무조건 자기주장만 하지마라. 75년생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 어려워도 힘이 솟는다. 87년생 역마에 흉살이 있으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용 52년생 어수선하고 들뜬 분위기의 하루. 64년생 자신없는 일에 마음이 불편하다. 76년생 언쟁에서 져서 어느편도 들수 없다. 88년생 가볍게 여겼던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뱀 53년생 남을 비난 했던 행동을 자신이 하게 된다. 65년생 오랜 시간 마음의 고생이 풀어 진다. 77년생 자원봉사하다가 배우는 것이 더 많은 날이다. 89년생 과거 상념에 빠져 고리타분한 생각은 버려라.

말 54년생 융통성 있게 서로를 인정해주는 하루다. 66년생 서로간에 오해를 풀때 발전이 있다. 78년생 재성운이 상승하니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 날이다. 90년생 자만심은 곤란한 지경을 당 할 수가 있다.

양 55년생 이상과 현실속에 갈등하게 된다. 67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일체유심조라 생각하기 나름이니 마음을 비워라. 91년생 스스로를 단금질 하여 난관을 극복하라.

원숭이 56년생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68년생 덕필유지인이란 말을 실감하게 된다. 80년생 친척에게 금전적인 속내를 다 들어 내지 마라. 92년생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외롭다.

닭 57년생 일의 마무리를 잘 하라. 69년생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81년생 내로 남불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자신을 뒤 돌아 보라. 93년생 보기 싫던 사람도 아쉬울 때가 생기는 법이다.

개 58년생 시작이 반이니 아무리 어려워도 우선 착수부터 하라. 70년생 남의 힘을 빌리기 보다는 내자신의 능력을 키워라. 82년생 공든탑이 무너지지않도록 하라. 94년생 원한관계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돼지 59년생 노력해 온결과 이젠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야 할때가 되었다. 71년생 대인관계의 원활이 성공의 요소다. 83년생 사필귀정이니 조용히 기다려라. 95년생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1				9	3	
8			4		3			7
	4		1		7		6	
		9				1		
	1	2				6	4	
9			6		8			1
				3				
	8		5		9		7	

4			5	2			3	1
	1				6			
		7		3		4		
1			4				9	
	2	3	7					8
8			1				7	
		9		7		8		
	6				8			
5			6	1				

스도쿠 정답

6	7	3	9	1	5	4	8	2
9	8	4	2	3	7	5	6	1
1	5	2	8	4	6	7	3	9
8	4	6	5	7	9	2	1	3
3	9	7	1	6	2	8	5	4
2	1	5	4	9	3	6	7	8
7	6	8	3	5	1	9	4	2
4	3	9	6	2	4	1	5	7
5	2	1	7	8	9	3	4	6

9	2	7	4	1	6	8	3	5
4	5	3	8	9	2	1	6	7
6	1	8	5	7	3	9	4	2
5	7	2	9	3	1	6	8	4
8	4	1	3	6	7	5	2	9
3	6	4	1	2	8	7	9	5
7	8	5	6	4	9	2	1	3
1	3	9	7	5	4	8	7	6
2	9	6	2	8	5	4	7	1

문제 제공= 보누스

마사회, 아시아경마회의 기념 이색 시상식 한국마사회는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를 기념해 지난 13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기념경주를 시행하고 이색 시상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ARF는 중동,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27개 경마시행국이 모여 경마선진화를 위해 만든 연합으로 2년마다 아시아경마회의(ARC)를 연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며 엿새간 진행한다. 지난 13일 열린 기념경주에서 윈프리 ARF 의장, 김낙순 마사회장(왼쪽 두번째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KEB하나은행 KPGA와 대회 개최 협약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한중일 3국 투어 선수 초청 경기인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이 양휘부 KPGA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와 한·중·일 3국 투어 선수 초청 경기인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한·중·일 선수들이 참가하는 최초의 정규 투어 대회로, 하나금융그룹과 KPGA가 '투어의 글로벌화'라는 기치 아래 해외 투어 대회와의 공조를 꾸준히 타진해 온 결과다.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교류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골프 스포츠 발전과 활성화를 목표로 중국과 일본 측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내 이번 대회가 탄생됐다.

/김문호 기자 kmh@

김상회의 四季

미륵반가사유상을 모시며

필자는 2017년에 숙명처럼 서오릉 월광사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게 되었다. 꿈에 현몽한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었다. 2018년 금번의 청동 미륵반가사유상은 국보중의 국보이자 한국의 미소로 불리는 국보 83호와 형태는 동일하다. 부처님을 모시게 된 인연도 역시 그러하다. 필자의 자식이었던 김 산이와 김 별이가 한 달을 차이로 세상을 달리한 후, 생시처럼 할머니와 꿈에 나타나 어서 빨리 미륵보살님을 모셔오라고 재촉하였던 것이다. 기실 5월6일 모신 미륵부처님은 근 이 년 전에 처음 뵈었었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는 법상종 산하인데 법상종의 총무원장님이 계시는 본원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이다. 처음 뵌 당시에 예사롭지 않은 기운과 소통을 느꼈으나 형편이 닿지 않았었다. 추후 모실 수 있기를 구두로나마 부탁드렸던 것인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가고 있었다. 그러던 작년 10월 11월에 산이와 별이가 황망하게 지장보살님께 떠나고 난 후 백일 쯤 지난 어느 날 밤 꿈에 나타나 미륵보살님을 함께 뵌 것이다. 그러던 중 올 4월초 다시 산이와 별이가 또 나타나 필자를 미륵보살님께 이끌었다. 황망히 잠이 깬 필자는 다음 날 아침 무조건 안성 법상종 본원으로 달려갔다. 이게 웬 일인가? 절의 문화박물관을 만들어 이관하려는 계획 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 자격으로는 억만금을 주어도 월광사에 미륵부처님을 모실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인연이 지중함을 느끼고 부처님을 모시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2018년 5월 6일 미륵부처님을 모시게 된 것이다. 무술일(戊戌日) 법비(法雨)까지 촉촉이 내려주어 모처럼 미세먼지까지 걷어가 준 청량한 날이었다.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오십육억 칠천만년이 지난 후 중생구제를 위하여 오신다는 미륵신앙의 주인공이 되시는 부처님이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미륵 부처님께 구제를 청하고 소망을 발원하며 크게 의존해왔다. 부족한 필자에게 항상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신도님들이야말로 필자에게는 미륵보살과 다름이 없다. 이 모두가 어찌 우연이리오! 세세생생 업연의 이어짐과 선연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가사유상 부처님 점안식에 참석한 그 인연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도님들과 모든 인연들, 중생들이 다함께 복덕자량이 여여하시기, 모두 도과를 이루시길 간절히 발원 드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